

AS SEEN IN...



cosmo  
**talks**  
COMMANDMENTS

"SNS의 여왕이 되어보세요"

**스마트하거나  
섹시하거나,  
코스모 걸의  
SNS 활용법 10**

연애든 커리어든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영향력을 빼고 논할 수 없는 세상이 됐다. SNS를 스마트하게 혹은 섹시하게 이용하는 방법이 궁금했다면 이 10가지만 기억할 것. 어디터 걱정은

- 1 블로그 방문자 수를 늘리고 싶을 땐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답. '트위터피드'라는 프로그램은 당신이 블로그에 올린 글을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자동으로 보내준다.
- 2 포스퀘어를 할 때 단지 어디가서 뭐 먹었다는 식으로 활용하는 건 NG. 관심 분야가 카페라면 다양한 카페에 들를 때마다 마케팅적으로 분석하는 글을 올리시길.
- 3 그저 일기를 쓰는 형식으로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것보단 한 가지 주제를 확실히 정할 것.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얻고 책을 내게 될 수도 있다.
- 4 블로그 내용을 2차 결과물로 만들 때 꼭 출판사를 통할 필요는 없다. 'PDF 프린터'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PDF로 만들어 배포하는 건 어떨까?
- 5 시시콜콜한 연애 이야기를 트위터나 블로그에 올리는 건 아무에게도 도움 안 되는 일이고 사생활 노출의 우려도 있다. 대신 연애와 관련된 최근 연구 결과를 트윗하라.
- 6 트위터에 일상적인 이야기를 올리더라도 콘셉트와 정보를 담는다 생각할 것. 음식 사진 하나도 다이어트 관점에서 올리든가하는 식으로 말이다.
- 7 무슨 내용을 트윗할까 고민이라고?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트위터의 특성상 최신 정보나 자신이 속한 업계 정보, SNS와 관련된 정보를 올릴 것.
- 8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조금 뜬금없게 이용하는 팁. 그와 당신만 알 수 있는 암호 코드를 정해 "오늘 밤 너와 하고 싶어"란 의미로 사용하는 건 어떨까?
- 9 트위터에 글을 올릴 땐 같은 내용이라도 '말을 걸듯', '대답을 유도하듯' 올리면 확실히 반응이 다르다. 팔로워 입장에서선 독백하듯 쓴 글보다는 멘션을 올리기가 수월하기 때문.
- 10 구직이나 이직을 위해 링크드인(LinkedIn) 계정을 만들 땐 한글뿐 아니라 영어로도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. 잘하면 해외 취업의 기회도 열린다는 사실!



**COSMOPOLITAN KOREA**  
- MAY 2013  
Cosabella's Never Say Never  
'Sweetie' Soft Bra &  
'Hottie' LR Hotpants